

일본의 학교교육과 독서지도

학교도서관의 충실이 일본문화의 기초

大木 衛

서울 일본인학교 교장



집단독서의 발표형태

지방마다 '학교도서관협의회' 조직

일본에서는 국민의 문화향상은 평생교육에 있다는 이념을 실현하기 위하여, 유치원 어린이를 가진 '어머니교실'에서 시작해 의무교육(소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교 및 대학, 성인 및 노인학교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학습을 실천하고 있다. 이것은 성인교육의 기반은 학교교육에 있다는 생각이다. 각 급학교 학생들의 발달단계에 따라 이에 상응하는 연수가 이루어지는 독서서클 활동이 활발하다.

학교에서의 공부는 각 교과와 도덕, 특별교육활동, 학교행사의 네 분야로 나뉘지며, 학습방법도 지식의 주입식이나 획일적인 학습방법은 이제 자취를 감추었고, 적극적으로 자주·자율·자습학습의 과정을 지도하는 학습방법이 중심이 된다.

학생 스스로가 학습계획을 세워서 그것을 실천하는 굳은 의지를 습관화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기능으로서 책을 구하여 스스로 索引하고 내용을 조사하여 자기 자신의 지식으로서 정착시키는 방법이다. 이와같은 학습태도를 교육기술에서 중요시함은 물론이다.

자발학습은 과제해결의 방법이기 때문에, 학습자료로서의 책과 참고서가 중요한 길잡이가 된다. 대학에서 초등학교까지 도서관과 도서실의 설치가 의무화되어, 매년 예산이 확보되고 장서도 늘어난다. 학교도서관의 충실이야말로 일본문화의 기초라고 말할 수 있다.

일상적인 도서관 활동으로서 전국 각 지방에 학교도서관협의회가 조직되어 있다. 이 협의회는 SLA(School Library Association) 라고 약칭되는데, 전국의 모든 학교가 가맹하고 있다. 중앙에서 말단 학교까지도

서관에서의 학습을 돕기 위하여 조직되어 있다. 특히 아동회(소학교), 학생회(중·고교) 부서에는 반드시 도서위원회가 조직된다. 그리고 그들의 활동은 일관하여 자율활동이 특색이다.

이 활동의 구체적인 예로서 전국 독서감상문 콩쿠르대회를 들 수 있다.

매년 일정기간을 도서주간으로 정하고 그 표어를 포스터로 만들어서 전국 방방곡곡에까지 널리 알리는데, 이때 과제도서와 자유선택도서가 각각 부여된다. 이 책을 읽고 난 감상문이 각 지방에서 선택되어 縣(우리나라의 道에 해당) 단계에서 발표회를 갖는다. 그리고 전국적인 입장에서 전문적인 학습지도자, 작가, 학자 등에 의해 전국 대표가 결정된다. 그 글은 신문·방송 등에 공표되고 내각총리대신에 의해 표창되는 것이다.

전국의 의무교육의 모든 학교에서는 SLA의 하부조직으로서 직접 간접으로 연간계획에 따라 독서지도가 이루어진다. 모든 어린이들이 독서를 통해 자기의 생각을 발표함으로써 독서의 효과를 증진하며, 서로 경쟁하고 서로 도우면서 독서를 즐기게 된다.

서울 일본인학교의 독서교육

서울 일본인학교는 개교 이래 16년이 되었다. 현재 유치부, 소학부, 중학부 등 모두 4백여명의 학생과 교직원 42명이 종사한다. (최근에 이사한 개포동 교사를 참고로 소개하면, 본관은 철근 콘크리트 5층과 중학부의 독립교사로 3층건물, 근대적인 理科室, 체육관 겸용 강당과 풀장으로 되어 있다. 교정은 5천평방미터)

도서실은 본관의 중앙부에 위치해 있다. 여기에는 도서시책가 전속 배치되어 있

일본에는 전국 각 지방에 학교도서관협의회가 조직되어 있으며, 모든 초·중·고등학교에서는 그 하부조직으로서 연간계획에 따라 독서지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또 학교마다 반드시 도서위원회가 있어서 자율적인 독서서클 활동을 활발히 벌이고 있으며, 매년 전국 규모의 독서감상문 콩쿠르가 열린다. 학교도서관의 충실이야말로 일본문화의 초석이라고 말할 수 있다.

며 6천여권의 장서가 개가식으로 자유로이 열람되고 또 대출되고 있다. 매일 평균 150여명이 도서관을 이용하고 있으며, 특히 각 학급문고와 PTA(자모회)가 운영하는 도서가 있어서 학생들의 독서활동에 지대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매일의 독서활동을 일기에 기록하고 각 학급의 이용상황을 발표토록 하여 독서열을 배가시킨다. 학교 예산, PTA의 협력, 외부단체로부터의 기부도 많이 있어서 장서량은 날로 증가하고 있다.

학생들은 매주 한 시간씩 도서실에서 담임선생님과 함께 자유롭게 독서를 선택하여 읽는다. 여름철은 시원한 환경에서, 겨울철은 적당한 온도 속에서 위인전, 탐험이야기 등을 접하며 흥분과 열기 속에서 책과 친근하고 있는 모습을 본다.

독자적 판단력과 비판력 길러줘

독서란 스스로 그 의의를 발견하고 계속하여 맛을 들임으로써 독해력과 독서습관을 몸에 익히며, 일반 교과학습이나 생활 속에 독서를 짜넣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다.

또 어떤 지식을 얻으려고 할 때는 TV를 이용하거나 라디오 등의 설명을 듣고 책을 읽는 과정을 되풀이함으로써 정착시키게 한다. 더욱 중요한 것은, 직접 사물을 접촉하거나 분명치 않은 점을 스스로 찾아서 새로운 것을 글로 정리하게 함으로써 확실한 지식으로 이르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자기 자신의 이해와

진도에 맞추면서 시간을 들여가며 스스로 착실하고 정확하게 이해하는 방법이 바람직스럽다. 이해를 깊게 함으로써 자기의 독자적인 의견과 독자적 비판능력을 가지며, 깊은 감동으로 스스로의 감상을 표현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독자는 독서를 통해 시대와 장소를 달리하는 내용이라도 그것을 초월하여 저작자의 마음을 접하고 이해하게 된다. 자신의 감정을 자유로이 전개하고, 나아가 그것을 초월하여 많은 사물이나 사람의 생각을 비교하고 연결하여 더 한층 만족스러운 이해가 가능하게 된다. 독서는 작품의 스토리를 좇으면서 그 행동과 행동할 때의 기분, 그것들이 복합된 상황, 주위의 경관 등, 마음속에서 자유로이 상상의 날개를 활짝 펴면서 즐거움을 느끼는 것이다. 나아가 작가의 표현의 좋은 점, 내용의 참맛 등 말로 다할 수 없는 감동을 드높이게 될 것이다. 이러한 즐거움과 감동은 필연적으로 독서력에 이어지고 습관화됨으로써 자기 자신의 생활 방식을 가지있는 위치에 이르게 한다고 생각한다.

학습으로서의 독서

학습으로서의 독서는 넓은 시야에서 서서 다양한 생각과 시간적으로 보다 깊은 사물의 본질을 추구한다는 것을 들 수 있다.

또 국어과를 중심으로 한 독서지도에서 문장을 이해하고 수많은 독서경험에 의해 배양되는 기본적 태도가 독해능력을 한층 확실한 것으로 만들어 준다. 학습이나 생활 속에서 언어능력을 높이고 전교과의 영역에서 배우면서 독서의추진을 기대할 수 있다.

우리 학교에서는 매년 11월에 독서감상문발표회를 학교행사로 실시하고 있다. 전교에서 선발된 아동·학생이 전교생 앞에서 소리높여 감동적으로 읽음으로써 풍요로운 감정과 인간성의 충분한 배양을 배려하기 때문에 그 효과는 전교과 학습의 향상에도 큰 도움이 되고 있다.

나는, 전교과의 계획적이고 지속적인 독서지도를 통해 독서에 대한 흥미와 관심을 갖게 하고, 나아가 독서습관을 익힘으로써 풍요롭고 즐거운 생활을 하게 하는 등, 상상 이상의 가치가 탄생된다고 확신하고 있다.